

“칠레는 명예의 빚(deuda de honor)을 갚아라”: 지방시민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일고찰

조경진 (한국디지털대 문화학과)*

- I. 들어가는 말
- II. 사건의 배경
- III. 대답 없는 메아리, “칠레는 명예의 빚을 갚아라!”
- IV. “더 이상의 희생은 그만” : 검은 깃발의 시위
- V. 명예가 걸린 빛과 희생, 그리고 보상
- VI. 맺음말: 칠레에서 이끼계의 위상과 시민정신

북쪽 지방민은 국가발전에 꼭 필요했던 그 중대한 기여를 마음 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가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볼 때, 자기가 사는 도시에 물과 전기가 공급되지 않음을 볼 때, 하수도 시설이 없음을 볼 때, 바싹 마른 나무토막으로 지은 자신의 집이 재건의 희망도 없이 화재에 순식간에 사그라져 들어가는 것을 볼 때, 내륙 사막지대(pampa)로 들어가서 100여 개의 폐광촌을 볼 때, 그리고 그 자손의 미래를 생각할 때, 북쪽 지방민은 이 엄청난 불의(不義)를 대면할 때 반항하고픈 자극을 받습니다. 그는 이 땅을 떠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선조들의 피로 정복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정자들의 철저한 무관심과 절대적인 버림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북쪽 지방민은 5월 22일부터[sic. 21일부터] 반기

* Kyung-Jin Cho(Korea Digital University, Department of Applied Culture, azinku@kdu.edu), “Chile’s Debt-of-honor to Tarapacá: A Histo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Region”.

(反旗)를 올려 묵묵한 침묵의 시위를 벌입니다.

- 따라빠까(Tarapacá) 지방을 대표했던 하원의원 페드로 무가
(Pedro Muga)의 국회연설 중(*El Tarapacá*, 1957.06.05).

I. 들어가는 말

칠레의 근대정치사는 중앙집권체제를 일찍 구축한 국가를 중심으로, 1920년대 지배엘리트의 정당정치에서 시작되어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정당의 발전과 더불어 헤게모니 쟁탈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서술되어 왔다(Edwards 1928[1972]; Caviedes 1979; Gil 1966; Petras and Leiva 1994). 칠레의 근대정치사는 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왔는데, 정당 간의 갈등은 계급 간의 갈등을 표명하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크게 부각이 되지만 다른 종류의 갈등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단, 예외가 있다면 국가에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남부지방의 마푸체 원주민은 연구된 바가 있다(Bengoa 1999). 그러나 다른 남미국가에서 흔히 발견되는 국가와 지방유지(caudillos) 간의 갈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지주엘리트가 소위 칠레의 “귀족”(aristocracia)으로서 여러 정당을 창설하고 각각 다른 정당에 속하더라도 정치권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기 때문이고, 심지어 공산당과 사회당의 많은 지도자들도 이 지배집단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이 맥락에서 지방이라는 단위와 지방민이라는 주체는 칠레정치사를 서술하는데 유의미한 항목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본 논문은 칠레의 정치사에서 거론되지 않은 국가와 지방, 특히 북부지방과의 갈등관계에 주목한다. 칠레 최북단의 따라빠까(Tarapacá)와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지방은 각각 페루와 볼리비아의 영토였는데, 19세기 말 초석의 개발권을 둘러싼 분쟁이 일자 태평양전쟁(*la Guerra del Pacífico*)에서 칠레가 페루-볼리비아 연합군에 승리하면서 합병한 영토이다. 북부지방에 대한 역사서술도 엄밀한 의미에서 고유의

지방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북부지방의 역사쓰기가 초석개발을 주도했던 외국인본과 칠레정부의 긴장관계(Bermúdez 1987; Blakemore 1974; Monteón 1982; 1990; 1998)와 공산당의 창당으로 절정을 이루는 초석광산에서 시작된 칠레의 노동운동사(Pinto Vallejos 1991; Pizarro 1986)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왔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북부지방은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시민과 문화를 가진 주체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땅,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영토로 그려지는 데 그치고 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초석산업의 여러 면모(예를 들자면 초석광산 외 항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와 노동운동의 주체를 파악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방사의 일부가 아닌 전체로 그려지면서 북쪽지방을 “노동운동의 성지”로 신비화시켜 왔고, 북쪽지방의 여타 집단적 체험(collective experience)과 기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1957년에 북부 파라빠까 지방민이 칠레 중앙정부와 대치했던 “검은 깃발의 시위”(la protesta de las banderas negras)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하여 칠레 정치사에서 지방의 위상과 지방민이라는 정치적 주체가 갖는 함의를 논의한다. “검은 깃발의 시위”는 지방민들이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기억하는 전설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지방사나 칠레통사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다. 이 사건이 특이한 점은 북부지방의 특정한 집단이나 계급이 중앙정부에 봉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계급간의 차이를 뛰어넘어 한 도시의 시민 전체가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점이다. 시위가 극에 달했을 때에는 지방민 대표들은 중앙정부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북의 공화국”(la República del Norte)을 세우겠다는 성명서를 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목적했던 바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밀레니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억되고 있는 칠레의 시민정신의 특성과 국가 체계모니에 대항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자는 2000년과 2005년에 파라빠까 지방의 수도 이끼케(Iquique)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수집하고, 생존하는 참여자들을 심층면접하여 “검은 깃발의 시위”를 재구성하였다. 이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방민들이 항의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부각되고, 그 내용을 분석해가면서 따라빠까 지방민이 그간 국가와 맺어왔던 관계를 재조명하게 되었다. 이 시위는 초석수출의 본고지로서 따라빠까 지방이 칠레와 맺고 있는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거센 항의의 표현이었다. 여기서 지방사에서도 아직 정리가 안된 ‘검은 깃발의 시위’의 사건전개를 소개하고, 이 사건이 국가적 통합에 대한 도전으로서 갖는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나아가서 오늘날 까지도 칠레에서 유독 독특한 지방색을 내는 북부지방의 특성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어 온 것인지 밝혀보고, 따라빠까 지방민이라는 행위자를 정치사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II. 사건의 배경

한 지방의 자원이 국가의 근대화를 가능케 했다면, 국가는 이 지방에 특혜를 줄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1880년부터 1930년까지 칠레의 국고는 따라빠까 지방에서 캐내어 수출했던 초석(salitre)에 의존했었다. 이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국고의 약 40%를 초석의 수출세로 채웠던 칠레는 그 소득으로 기다란 국토를 연결하는 토목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여서 철도, 다리, 도로, 댐 건설 등으로 국토를 통합시키고 근대국가로서 갖춰야 하는 인프라를 구축했다(Collier and Sater 1996; Loveman 1979 [1988], 179; Sagredo 2001a; 2002b). 칠레의 초석산업은 독일에서 인조 초석이 생산되면서 1930년대 초에 급격히 위축되어 국고에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재원이 되지 못하였고, 따라빠까 지방에서의 초석생산은 현지 인구를 지탱시켜 주는 정도에서 지속되었다. 그러나 소수의 광산마저 문을 닫게 되는 1950년대 중반 이후에, 따라빠까 지방은 생계를 보장해 줄 만한 경제활동이 없어 중앙정부에 초석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경제활동을 정책적으로 수립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이 같은 요구가 지방민의 입장에서서는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초석산업 그 자체가 안정적인 산업이 아니었는데, 단일산업에 의존

했던 따라빠까의 경제는 초석시장이 요동을 칠 때마다 같이 흥망하는 경험을 거듭했었다. 초석시장의 횡포와 폐해를 직접 경험했던 이 지방 주민들은 초석산업의 종말이 몰고 올 재앙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어떤 사회적 보장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의 초석 수요가 하락하면 광산들은 가동을 중지해야 했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강제 이주시켜야만 했다.¹⁾ 수요가 증가하면 가동을 중지했던 초석광산들은 생산에 돌입해야 했고, 그 때 칠레의 길다란 국토를 따라 “뉘시꾼”(enganchaderos)들이 정치 없이 남쪽으로 흘러 들어온 광산노동자들을 찾아내서 북쪽으로 다시 이송시키곤 하였다 (Stickell 1979; Cho 2004). 역사학자 스티켈은 이러한 잦은 이동과 불안정성이 초석광산 노동자들의 정치사회적 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서 초석광산에 사회주의 사상이 퍼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Stickell 1970). 그 당시 자료들을 보면, 이 반 강제적 이주는 광산노동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도시의 상인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온다(Monteón 1998). 실제로 인근의 초석 수출항구였던 피사과(Pisagua)가 1950년대 초에 폐쇄되면서 도시 자체가 없어졌던 것을 이끼께 시민들은 직접 목격했었다. 따라서 초석광산들이 폐쇄되면 노동자들은 이주를 해서 인구의 대규모 이주(exodus)가 일어날 것이 우려되었고, 인구가 없으면 경제도 없다는 위기의식이 감돌았던 것이다.

칠레 북부지방을 연구한 역사학자 카스트로에 의하면 이 지방 고유의 정체성은 개별적인 것으로 고립시켜 분석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빠까 지방은 그 탄생자체가 지대수입형 국가(rentismo estatal)의 소산으로 사막이라는 지질적 특수성 때문에 자연공동체의 성립이 불가능한 곳이었는데 초석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시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초석 수입

¹⁾ 이끼께는 초석수출 항구로 태평양전쟁 전후로 세워진 도시였다. 1950년대 지방 신문에서는 그 때까지도 여전히 물의 공급이 매우 시급한 문제였고, 도시에 하수구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는 언급을 자주 하고 있다.

은 다시 중앙으로 돌아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따라빠까 지방이 초석산업의 혜택을 받지 못했었다. 따라빠까 지방민은 이러한 구도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점차적으로 국가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 “보상적인 개념”(conceptos reivindicativos)으로 대응담론을 구성하게 되었다. 19세기 말부터 1950년대까지 지방신문에 자주 언급되는 문구들은 모두 이처럼 “보상적인 언어”를 담고 있었는데, 중앙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국가로부터의 버림”(abandono estatal), “행정적 불평등”(desigualdad administrativa), “무관심한 통치”(despreocupación gubernativa) 등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었다(Castro 2002, 21). 이런 감정을 악화시킨 것은 평소에 무관심한 국가가 노동운동 탄압을 할 때에는 앞장서서 군인들을 투입하고 진압을 했다는 점이 었다. 특히 광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학교 운동장에 모이게 한 후 몰살했던 산타마리아 학교의 대학살(la matanza de la Escuela Santa María)은 국가의 따라빠까 지방에 대한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Frazier 1998). 따라빠까 지방민의 집단적 기억에는 국가가 이 땅의 부는 뺏어가고, 그 부를 일궈낸 지방민을 착취하고 탄압한 존재로 자리잡고 있었다.

초석시장 때문에 몇 고비의 위기를 경험한 국가의 입장에서라도 다른 방식으로 국가의 경제발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1930년대 말, 아그레 쎬르다 정권은(Pedro Aguirre Cerda 1938-1941) 단일 수출 품목에 국가경제를 의존시키는 것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지대수입형 국가의 편향된 산업구조가 갖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입대체화산업을 장려하는 전략으로 생산구조를 다변화시키고자 하였다. 1957년에 이끼계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자유무역 산업지대 프로젝트를 내부에서부터 기획하고 중앙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주고 집행해주시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제 막 수입대체화산업을 육성하려고 했던 칠레 정부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이끼계의 자유무역안은 산업부품과 원자재를 무관세로 수입해서 조립생산을 현지에서 한다는 안이었으나, 자유무역을 허용하면 수입완제품이 국내시장으로 밀수 유

통될 것에 대한 우려가 그 이유였다.²⁾ 정부의 입장이 관료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해졌더라면 이끼계 시민들이 느끼는 서운함이 덜 했을 것인데, 정부는 이런 태도의 의사를 한번도 공식적으로 전하지 않았다. 그런 정부의 태도가 이끼계 시민의 감정을 악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검은 깃발의 시위”를 촉발한 계기가 되었다.

Ⅲ. 대답 없는 메아리, “칠레는 명예의 빛을 갚아라!”

이끼계에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자는 논의는 1956년 초에 일기 시작했다. 당시 이끼계시(Municipalidad de Iquique) 대표(시장과 시의원들), 이끼계 상공회의소 회원들, 그리고 시민대표로 구성된 발전위원회(Centro Para el Progreso)³⁾ 모두 초석시장의 종말을 예고하고, 이 도시가 1931년에 경험했던 인구유출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 하에 대안적인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⁴⁾ 이미 시 발전위원회는 중앙정부에 다

²⁾ 칠레의 전경련이라 할 수 있는 “산업공동체”(Sociedad de Fomento Fabril - SOFOFA)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로비운동을 폈다. 주로 수도 산티아고와 남부지방에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로 구성되었던 이 단체는 북쪽 지방에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을 지지할 이유가 없었다.

³⁾ 이 세 단체의 구성원은 서로 겹치기도 하였다. 시발전위원회의 가장 적극적인 회원들은 시장을 한 경험이 있거나 시의원을 동시에 지내고 있었고 상공회의소의 회원도 있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 회원 중에 시장이나 시의원을 지낸 인물은 없었다. 눈에 띄는 것은 노동자 대표의 부재인데, 당시 곤잘레스 비델라(González Videla)의 공산당 탄압 정책으로 노동계의 활동이 저조할 수밖에 없던 시기와 겹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 발전위원회의 활동은 이끼계의 상인 증산층이 주축이 되어 이끌었다.

⁴⁾ 마지막까지 가동하던 초석광산이 폐광위기에 처했던 1956년에 이끼계시는 패닉 상태에 들어갔다. 현지신문은 닥쳐올 재앙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다음과 같이 세세하게 보도했다: “5000명이 참석한 시민회의(Cabildo abierto)에서 따라빠가는 생존할 권리를 사수할 것이다”(El Tarapacá de Iquique, 1956.02.09); “산 엔리케[폐광촌]에 실업자를 위한 급식구제가 시작되었는데도 정부는 안하무인”(El Tarapacá de Iquique, 1956.02.22); “몰락의 위협을 앞두고 복은 근심의 걱정에 휩싸이다”(El Tarapacá de Iquique, 1956.05.24); “이끼계는 삶과 죽음을 넘나들고 있다”(El Tarapacá de Iquique, 1956.03.01); “산 엔리케의 광부들은 또 다시 남쪽으로 이주시킨다고 한다”(El Tarapacá de Iquique, 1956.03.02); 이때 강제이주가 있었던

양한 지원책과 지역개발을 촉구하는 다양한 운동을 펼친 바 있었다.⁵⁾ 그러나 그들의 ‘신사적인’ 요구방식은 항상 무시되었고 이미 이 지방은 중앙정부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이 때 당시 시민발전위원회 대표이자 시의회 의원이었던 루이스 세레세다(Luis Cereceda)는 이끼계의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안을 제시하여 도시민과 이곳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자유무역지대는 이곳 언론에서 논의되면서 지방의 사회경제적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자 희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같이 자유무역지대라는 기획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발전위원회는 산하에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모금운동과 행사를 벌였다. 1957년 3월에 ‘자유무역항을 위한 주간’(Semana Para el Puerto Libre)에는 자유무역항 여왕 ‘페기 1세 각하’(Su majestad Peggy I)을 선발해서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하였다. 시민들은 지역신문사에 수많은 시들을 보내 그녀를 예찬하기도 하였다. 소위원회는 자유무역지대를 주제로 한 노래경연대회도 열어, 그 열망을 ‘자유무역항 찬가’(Hymno para el Puerto Libre)에 담아 널리 불리게 하였다. 소위원회는 또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서 대표들이 수도 산티아고에 가서 행정부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자금을 모으기도 하였다. 소위원회와 시 대표들은 이끼계 시민단체들의 지지 성명을 받아 지속적으로 신문에 내기도 하였다. 발전위원회 회원들에게 이 기획이 시민

것은 아니었고 위기의 상황은 실제보다 더 과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때 이끼계 시를 패닉상태로 몰고 갔던 것은 반 강제적 이주와 그 사회적 여파에 대한 집단기억이었을 것이다(Cho 2004, 95-100).

⁵⁾ 이끼계 발전위원회가 정확히 언제부터 생겼는지에 관한 자료를 찾았으나 확보하지 못해 그 시기를 확인할 수 없다. 현지 언론에는 1940년대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아 1931년 초석산업 위기 때 자체적으로 형성된 집단이 아닌가 생각된다. 1950년대에 발전위원회 요구사항으로는 수도공급, 전기공급, 하수도시설, 이끼계와 볼리비아를 잇는 고속도로의 건설, 주거문제 해결 등 다양했다. 발전위원회 회원들은 산티아고에서 행정당국 인사가 올 때마다 회의를 열어 이 사항들을 요구하고, 또 산티아고에 직접 내려가 해당부처 장관과 면담을 의뢰하여 이 사항들을 전달했던 것이 현지 신문에 널리 보도되곤 하였다. 그 당시 이끼계뿐만 아니라, 그 이남에 있는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코킴보(Coquimbo) 등 초석 지대의 다른 도시들에도 각각의 시발전위원회가 있었다.

전체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이 기획안을 제시하는 경우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⁶⁾

정부는 그 어떠한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따라빠까 지방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지지성명을 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로 넘기지 않자, 이끼께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까지 절제와 예의를 동반한 정부인사 설득작업을 발전위원회 임원들이 폈었다면,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시를 내세워 정부의 무관심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시는 “지역정부로서, 지역주민 대표로서, 지역시민의 걱정거리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매개체”⁷⁾임을 내걸고 발전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시민대표들은 모든 단계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하고 밟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에게 접근하였다. 그 첫 단계로 시 대표들은 ‘이끼께 시민성명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각 부처 장관, 지방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지방 도지사에게 보냈다:

시정부(Municipalidad)는 진정으로 민주적인 지역정부로서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 1) 중앙정부는 이끼께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라.
- 2) 중앙정부는 수십 번에 걸쳐 전달된 다양한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결단력 있게 대처해 줄 애국적인 의무가 있다.

⁶⁾ 특별히 발전위원회의 모든 활동에는 정치적 계파와 색채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실제로 그 회원도 여러 정당지지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발전위원회는 의식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띠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은 특정 이데올로기나 계급의 이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따라서 그 전략도 과격한 반정부 시위나 파업 등이 아닌 끊임없는 설득과 합당한 절차를 거친 토론의 형식을 취했었다. 실제로 이러한 발전위원회의 성격 때문에 정부는 이들의 적극적인 공세에 어찌 대처할 바를 몰라 무시할 수 있을 때까지 무시하는 대응전략을 취했던 것 같다.

⁷⁾ 시청대표들과의 회의 중에서 발전위원회 위원장 루이스 세레세다의 발언(*El Tarapacá de Iquique*, 1957.03. 27).

- 3) 중앙정부는 초석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해야만 한다.
- 4) 지역정부로서 시 정부는 우리 지역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다른 지역 공동체 집단과 협력하고 이들을 지원할 것이다.
- 5) 중앙정부가 따라빠까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이끼끼시는 이끼끼 시민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그 어떤 결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에 묻는다.⁸⁾

한 인터뷰에서 이끼끼 시장은 “시 대표로서 우리는 사람들의 살 권리를 보호해 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언제까지나 가부장적인 중앙정부의 지시만 따를 것인가? 이끼끼는 지금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인내가 소진되고 있음을 알렸다.⁹⁾ 4월이 되도록 정부가 그 어떤 성명이나 조치도 취하지 않자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은 더욱 더 과격해지고 감정적인 톤으로 변했다: “따라빠까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¹⁰⁾ 소위원회 위원장 역시 “우리지방의 걱정을 제안이 아닌 요구(demandas)로서 들어줘야 한다. 역사적, 경제적, 도덕적으로 보나 우리는 이 같은 주장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논의는 절차와 예의를 갖춘 절제된 협상의 차원을 넘어섰음을 경고하였다.¹¹⁾

‘명예가 걸린 빛’에 관한 논의는 자유무역지대 기획안이 등장했을 때부터 거론됐었다. 1954년에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현지변호사 라울 끼나스트(Raúl Kinast)는 칠레 관세청 임원들과의 만찬에서 연설 중에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⁸⁾ *El Tarapacá de Iquique*, 1957.03.28.

⁹⁾ 시장 호세 로드리게스 라라기베(José Rodríguez Larraguibe)와의 인터뷰(*El Tarapacá de Iquique*, 1957.03.28)

¹⁰⁾ *El Tarapacá de Iquique*, 1957.05.04.

¹¹⁾ 자유무역항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 루이스 세레세다와의 인터뷰(*El Tarapacá de Iquique*, 1957.05.07).

우리 지방의 쇠잔함을 보십시오. 한때 이 지방은 칠레 전 국민을 먹여 살렸는데, 정작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경제에 공헌한 만큼 우리에게도 뭔가가 돌아와야 합니다. 자유무역항이 설치되면 이 땅 깊이 잠들어있는 수많은 자원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¹²⁾

1956년 시민회의를 여는 연설문에서 당시 시장이었던 알레한드로 발렌시아 주(Alejandro Valencia Joo)¹³⁾는 동일한 논리를 폈다. “자유무역항은 정당하게 우리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그것으로 정부는 우리에게 지고 있는 빚을 갚아야 합니다.”¹⁴⁾ 같은 자리에서 시의원 르네 디아스(René Díaz) 역시 같은 심정을 토로하였다. “우리가 현재 밟고 있는 산업화는 이 지방이 제공해 준 부(riqueza) 덕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많은 반대에 봉착할 것입니다. 자본가들은 그들의 탄생이 이 땅의 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이 땅은 모든 것을 주었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이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데, 그 누구도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¹⁵⁾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다.¹⁶⁾

자유무역항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신문과의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며 여기에 대응되는 표를 실어달라고 했다(<표1> 참조). “1880년부터 1929년 사이, 정확히 말하자면 50년 동안 초석은 정부 예산의 43%를 채웠었다. [...] 칠레 역사를 통틀어 이와 같은 전례는

¹²⁾ *El Tarapacá de Iquique*, 1956.08.03.

¹³⁾ 알레한드로 발렌시아 주는 이끼계 중국공동체의 일원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중국계 칠레인이었는데, 1800년대 말 구아노 채집을 위해 광동지방에서 이주했던 중국인들의 후예이다. 그의 역할에서 볼 수 있듯이, 이끼계의 인구구성은 인종적으로 매우 다양했고, 그들이 정치적 활동을 할 만큼 열린사회였다.

¹⁴⁾ *El Tarapacá de Iquique*, 1956.02.22.

¹⁵⁾ *Ibid.*

¹⁶⁾ 이바네스 정권이 이 문제에 침묵을 지킨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꼭 의도적인 무시는 아니었다고 본다. 경제학자 알버트 허쉬만이 지적하고 있듯이 칠레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가 바로 1958년이다(Hirschman 1963). 정치도 급진화되어 가는 사회적 분위기에 고조되어 전국적으로 파업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무반응은 국가가 지방민을 동등한 맞수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없다. 한 지방의 자원으로, 이 자원을 일군 이 땅의 노동으로 전 국민을 먹여살리고 또 낮잠(siesta)을 자게 해 준 것은 우리밖에 없다. 우리지방의 중요성이 떨어지자 이제 우리는 중앙과 남쪽의 화려한 산업체들에게 부담만 되고 있다.”¹⁷⁾ 이 말에는 국가가 수입대체산업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그것 역시 남부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만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책망과 비판이 실려있다.

발전위원회와 이끼게 시에서 요구하는 자유무역지대 프로젝트는 정부의 특별한 재정적 지원을 바라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법안은 오히려 지역경제를 국가의 지원 없이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었던 것이다.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칠레정부는 실직자를 위한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일반적으로 도로공사 등의 국가주도의 토목공사에 유희인력을 투입하여 구제해주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었다. 발전위원회 회원들은 따라빠가 지방과 이끼게가 자급자족(autoabastecimiento)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마련해주는 수단으로서의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를 했었던 것이다. 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숙련된 노동을 근거로, 척박한 자연환경, 특히 수도공급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의 부족은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면 상쇄될 것이라고 믿었었다. “우리의 땅과 바다는 천연자원의 보고입니다.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할 뿐입니다.”¹⁸⁾ 그리고 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무관세의 세제 혜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표 1〉 초석수출세가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1880-1929)

연도	%
1880	5.52
1881	19.96
1882	26.83
1883	34.61
1888	41.24

¹⁷⁾ *El Tarapacá de Iquique*, 1957.05.07.

¹⁸⁾ 자유무역항 설립을 위한 소위원회(Comando Pro Puerto Libre) 성명서. *El Tarapacá de Iquique*, 1956.09.23.

1890	52.06
1894	67.93
1900	56.29
1905	56.67
1913	52.81
1916	60.16
1919	24.12
1920	49.65
1924	38.63
1929	23.65

출처: *El Tarapacá de Iquique*, 1957.05.07

이 발언은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도리어 남부지방을 대표하는 국회 의원으로부터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공개적으로 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 나아가서 국회에서 북부지방 사람들을 특혜만 바라는 ‘게으름뱅이’로 규정하는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반려(veto)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것이 이끼계에서 그간의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IV. “더 이상의 희생은 그만”: 검은 깃발의 시위

1957년 5월 16일, 이끼계 발전위원회와 상공회의소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힐베르토 플로레스(Gilberto Flores)는 안토파가스타에 열릴 예정이었던 북방지역회의(Convención del Norte - 칠레 3개 북쪽 지방의 시 정부와 발전위원회 공동회의)에서 이끼계 대표들은 연방주의(federalismo)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자고 하였다. “지난 몇 년간 따라빠까 지방의 생존이 달린 법안에 대해 중앙정부는 완전한 무관심과 무시로 응대했습니다. 이에 이끼계 발전위원회는 우리 대표들이 북방지역 회의에 참석하여 연방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로 했습니다.”¹⁹⁾ 이에 이끼계 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더 이상 장관이나

¹⁹⁾ *El Tarapacá de Iquique*, 1957.05.16.

정부인사의 방문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을 방문하는 것을 중단할 것입니다. 행정적 절차와 정부의 장난에 우리는 ‘이제 그만’이라고 합니다.”²⁰⁾ 현실적으로 3개의 지방이 연방정부 수립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리는 만무했다. 그러나 폭력이 아닌 민주적이면서도 ‘교양있는’(decente)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선을 처음부터 지켜왔던 시발전위원회와 시정부는 연방주의를 중앙정부에 대한 항의와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해했던 것 같다. 그 다음날, 이끼계 발전위원회는 5월 21일 추모행사를 보이콧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서 시정부도 모든 시민에게 5월 21일 추모행사를 보이콧하고 경제활동도 모두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5월 21일은 칠레에서 독립기념일(9월 18일)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기념일이자 공휴일이다. 이 날은 1879년 5월 21일 있었던 이끼계 전투를 기리고 그 때 죽은 군인들을 추모하는 날이다. 북쪽 지방의 초석광산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태평양 전쟁(1879-1883)에서 칠레는 페루-볼리비아 연합군과 싸워 결국 승리를 거두고 페루의 수도 리마에 입성까지 했었다. 그런데 5월 21일 있었던 이 전투는 사실상 칠레 해군이 페루 해군에게 처참하게 전멸당했던 전투이다. 이끼계 해상에 홀로 남은 포함(砲艦) 한 척을 지휘하던 아르투로 프라트(Arturo Prat) 대령은 페루의 장갑함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후퇴하거나 항복하지 않고 역공격을 하다가 적군에게 직사당했었다. 그 후 아르투로 프라트는 전쟁영웅이 되었고, 전투가 있었던 이 날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자신을 기꺼이 희생했던 프라트의 정신을 기리는 국경일이 되었던 것이다.²¹⁾ 매년 5월 21일에 칠레 전역에서 대대적인 추모식과 행사들이 열리는데, 특히 이끼계는 그 전투의 본고지로서 지방

²⁰⁾ *Ibid.*

²¹⁾ 아르투로 프라트가 영웅이 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역사학자 세이터에 의하면, 그 당시 칠레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영웅이 필요했던 시기였다. 이미 죽은 프라트는 충분히 추상적이어서 모든 정치계파들이 그 상을 이용할 수 있었고, 또한 국가를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감수한 좋은 예가 되었다고 한다. 프라트의 동상은 그 이후 수많은 칠레의 도시에 세워졌으며 매년 5월 21일 발파라이소에 있는 그의 묘에 대통령과 삼군 대표들이 추모행렬을 이룬다. 세이터는 당시 프라트의 동료들은 그의 죽음을 희생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이해했다고 한다(Sater 1986).

정부(intendencia)가 주도하는 다양한 행사가 벌어졌다. 당일에 시의 모든 학생과 교사들이 시내를 행진하며 시의 가운데 있는 프라트 동상에 경례를 하는 행사, 지방정부와 시청의 인사들과 군관계자들의 공식적인 추모행사, 그리고 프라트가 지휘하던 에스메랄다호(La Esmeralda)가 침몰했던 자리를 배로 방문하는 행사 등이 그 당시와 현재까지도 당일 날 치러지는 행사들이었다.

이끼계 발전위원회가 보이콧하자는 추모행사들은 이같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을 기리는 행사였다. 발전위원회는 이 보이콧 행위가 구체적으로 희생정신을 겨냥한 것이라는 성명을 내지는 않았었다. 대신 이끼계 시의회는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말고 이끼계시의 모든 건물에 칠레국기를 올리되 반기로 올리라는 임시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날의 보이콧은 압도적일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현지언론에 의하면 등교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고, 시의 모든 가게들은 문을 닫아 시 전체가 ‘죽은 도시’ 같았다고 한다. 건물들에는 칠레국기가 반기로 올려져 있거나 검은색 깃발을 반기로 올렸었다. 당시 시의원을 지냈던 사무엘 아스토르가(Samuel Astorga)에 의하면 이끼계의 중심 광장인 프라트 광장 시계탑에 누군가가 볼리비아 깃발을 꽂아놓았었다 한다.²²⁾ 볼리비아기가 올라간 집들도 더러 있었다고 한다.

시민단체가 정부에 대한 항의표시로 이 행사를 보이콧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1924년, 항구도시 발파라이소(Valparaíso)의 교원노동조합(Asociación Gremial de Profesores)은²³⁾ 반복되는 임금삭감과 임금동결에 항의하는 방법으로 5월 21일의 행사들을 보이콧했다. 겉으로는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한 것 같은 이 시위에는 사실상 교사들의 희생정신에 끊임없이 호소하는 정부에 대한 도전의 의미도 담겨있었다. 당시 정부는 이들에게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할 의무가 있다고 일관되게 응대해왔었다. 정

²²⁾ 사무엘 아스토르가와의 인터뷰. 2000.06.11, 이끼계.

²³⁾ 아르투로 프라트를 두고 ‘세속적인 성자’(secular saint)라는 해석이 설득력 있다. 칠레 민족주의를 기리는 국가영웅에서 독립투사 베르나르도 오히긴스(Bernardo O’Higgins)를 제치고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대표적인 상징적 인물로 자리매김되었다(Sater 1986).

부가 2-3년 동안 같은 논리로 임금삭감을 합리화하자, 교원노동조합은 국가가 규정하는 ‘희생’의 의미를 거부하고, 정부가 ‘희생’의 개념을 독점적으로 구성하고 강요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도덕적 조작’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내면서 5월 21일 행사를 보이콧했던 것이다(Silva 2000, 191-192). 발파라이소는 해군본부가 있는 곳인데다가 아르투로 프라트의 묘가 있는 ‘세속적인 성지’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보이콧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프라트의 모범적 전례에 신성모독을 하는 격과 같았다.

교원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이끼계 발전위원회나 이끼계시의 대표들은 ‘희생’ 자체를 거론하는 성명서를 공식적으로 내지는 않았다. 이 ‘검은 깃발의 시위’가 있던 그날까지 많은 성명에는 그간 따라빠까 지방이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감수했던 희생에 관한 논의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끼계 시민들은 스스로를 프라트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이끼계와 프라트는 국가를 위해 희생을 했다는 공통점이 강조된 그림들이 그 당시 신문지면에 자주 등장했다. 그것은 단지 프라트가 이끼계 전투에서 희생을 하고 사망을 했다는 연관적 차원을 떠나, 두 주체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했기에 숭고하고도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프라트와 관련된 행사를 보이콧했던 것은 프라트에 대한 신성모독이 아니라,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해하고 인정해주기를 거부하면서 이 행사를 독점적으로 운영, 집행하는 중앙정부에 대한 시위였던 것이다.

이끼계시 곳곳에 볼리비아 기가 올려져 있는 것은 시위가 이미 발전위원회나 시정부의 통제권을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했다. 이끼계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가장 강력한 시위의 수단으로 숭고한 희생의 결과로 이 땅이 칠레 땅이 되었음을 자축해야 하는 날에 적대국인 볼리비아의 깃발을 날렸던 것이다.²⁴⁾ 사실상 이 땅은 전쟁 이전에 볼리비아 영토가

²⁴⁾ 따라빠까가 칠레영토가 된 것은 안콘조약(Treaty of Ancón)이 체결된 1884년이였다. 그 후 약 30-40년에 걸쳐 이 지역에 살고 있던 페루와 볼리비아인들은 자국으로 돌아갔고, 그 중 칠레인으로 국적을 바꾼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Pinto Vallejos 1991). 따라빠까 지방은 이주가 잦은 지방으로, 외국 이민인구도 많았으며 칠레

아니라 페루 영토였다. 페루기가 아닌 볼리비아기를 올렸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백인인구 구성비율이 페루와 볼리비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칠레인은 지금까지도 칠레의 우월성을 인종차별주의적 해석에 근거해서 주장하고 있다. 페루보다 원주민 비율이 더 높은 볼리비아는 사회경제적으로도 낙후되어 있어 칠레에서는 이 세 국가 중 볼리비아를 가장 열등한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런 맥락에서 볼리비아기를 올렸다는 것은 칠레정부를 향한 최대의 모욕이었다. 이는 이끼께가 칠레보다 볼리비아에 귀속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시위였다. 나아가서 칠레정부가 해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칠레 국민이기보다는 차라리 볼리비아 국민이 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²⁵⁾

칠레 중앙정부는 이 같은 시위에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보였다. 내무성(Ministerio del Interior)에서는 이끼께시와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을 애국심의 부족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Leyes para la defensa permanente de la democracia)²⁶⁾을 위반했다는 죄명으로 군법재판소에 고소, 회부했다.²⁷⁾ 내무성 장관 호르헤 아라베나(Jorge Aravena Carrasco)는 따라빠까 지방이 사회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한 것은 이해하지만 칠레 국기가 모독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내무성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²⁸⁾ 내무성은 북방지역회의에서 채택된 연방주의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이끼께시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냈다.

남부에서 광산에 일하기 위해 북에 정착했던 인구도 상당히 된다. 따라서 1957년 당시에 볼리비아기를 날렸던 사람들은 볼리비아 출신이거나 친볼리비아 인물들도 아니었고, 칠레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기 위해 볼리비아기를 날린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²⁵⁾ 사무엘 아스트로가와의 인터뷰. 2000.06.11, 이끼께.

²⁶⁾ 1938년 통과한 법으로 칠레의 공산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던 법이다. 이 때 탄압을 받은 좌파 인사들 중에 파블로 네루다가 있었고, 그의 추방은 칠레 작가 스카르메타(Antonio Skármeta)의 소설 *Il Postino*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²⁷⁾ 시에서 선출된 공무원들은 민간재판이 아닌 군법재판 관리 대상이었다고 한다. *El Tarapacá de Iquique*, 1957.05.25.

²⁸⁾ *El Tarapacá de Iquique*, 1957.05.27.

우리를 군사재판에 회부했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몰이해를 보여 준다. 그들은 칠레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 땅을 정복했던 영웅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북쪽 지방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이런 어설픈 고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끼끼시는 이 땅을 위해서 용감한 목소리를 냈다. 그 어떤 협박을 받더라도, 정부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어도, 우리는 이 지방을 사수할 것이다. 이끼끼시는 이 절망스러운 북쪽 지방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말도 안 되는 만행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²⁹⁾

이윽고 칠레 노총(CUT), 파라빠까 지방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각 정당, 그리고 타지방의 언론은 이끼끼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었다.³⁰⁾ 그리고 군사재판을 맡았던 발리에리 장군(Jorge Balieri)은 혐의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 대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이렇게 해서 종결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망신을 당했다는 평을 받고, 당시 이바네스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은 정부를 힐난할 수 있는 구실이 하나 더 생겼다. 그런데 정작 이끼끼 시는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연방주의에 대한 촉구도 무시되고, 군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북쪽 지방은 ‘칠레공화국’(República de Chile)의 주권과 통치하에 남겨지게 되었다.

V. 명예가 걸린 빛과 희생, 그리고 보상

이끼끼의 발전위원회와 시 대표들은 ‘명예가 걸린 빛’을 어떻게 이해했던 것일까? 애석하게도 필자가 이끼끼를 방문했던 2000년도에 이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 중 이끼끼에 살아있는 인물은 당시 시의원을 지냈던 사무엘 아스토르가(Samuel Astroga)밖에 없었다. 발전위원회의 활발한 멤버이자 이 조직의 회계를 맡고 있었던 토마스 투셋(Tomás

²⁹⁾ *El Tarapacá de Iquique*, 1957.05.25. 이끼끼를 지지하는 지방신문의 입장은 *La Unión de Valparaíso*, 1957.12.05일자에서 볼 수 있다.

³⁰⁾ *El Tarapacá de Iquique*, 1957.05.27.

Tuset)은 이미 고인이 되어 있었지만 그 딸이 전해 준 미발간의 회고록에는 자유무역지대 유치를 위한 발전위원회의 열망이 자세하게 실려 있었다. 문서로 남아있는 증언은 투셋의 글 외에는 시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지역신문 El Tarapacá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이끼끼의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검은 깃발의 시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나(이 사건은 지역신화로 구전되는 듯 했다), 그 구체적인 사건의 경과나 촉발요인, 참여멤버 등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예외적인 케이스로 2000년에 이끼끼의 인권위원회(Comisión de Derechos Humanos, Sede Iquique; 전국적인 조직인 ‘실종자, 구속자 가족연합회’(Asociación de Familiares de los Detenidos y Desaparecidos) 산하조직)의 회장이었던 플라비오 로씨(Flavio Rossi)는 인터뷰에서 “나도 마누엘 카스트로 라모스(Manuel Castro Ramos 체육관: 시민회의(cabildo abierto)가 열렸던 장소)에 여러 번 갔었다. 1950년대에 아주 많은 회의들이 열렸었다. 광산들은 문을 닫고, 광부와 그 가족들은 이끼끼로 모여들어 오고, 정부는 모르는 체하고 있었다. 검은 깃발은 그래서 올라갔던 것이었다.”라고 전해주었다.³¹⁾ 2000년 당시 이끼끼의 시의원을 지내고 있던 글렌 리자르디(Glen Lizardi)는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로, 그가 전하는 ‘검은 깃발의 시위’의 정황은 다음과 같았다. “1950년대 초석산업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이끼끼는 먹고살 길이 없어졌다. 며칠 동안 시 전체가 검정 깃발을 올렸었다. 그때 시민들은 칠레로부터 독립해서 ‘북의 공화국’(República del Norte)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³²⁾ 리자르디는 시위에 대한 얘기를 사회당 당원이었던 형으로부터 자주 들었었다고 한다.

현재 이끼끼에서 기억되는 ‘검은 깃발의 시위’는 지방민이 정부를 대상으로 침묵의 시위를 벌이고 대항했던 용감한 사건으로 기억되었다. 더불어, 그 구체적인 사건전개가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 기억에는 신비로운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다. 사건의 진행상황과 이 사건에 대한 집단기억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면, 1957년 당시의 이끼끼 시민들은 자신의

³¹⁾ Flavio Rossi와의 인터뷰, 2000.06.10, 이끼끼.

³²⁾ Glen Lizardi와의 인터뷰, 2000.05.22, 이끼끼.

요구사항이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전략적, 수사학적 수단으로써 ‘명예가 걸린 빛’의 개념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그 활동의 강도와 감정적 몰입으로 보아, 이들은 칠레라는 국민국가 자체가 자신들에게 빛을 지고 있음을 확고하게 믿었던 것 같다. 이끼계의 입장을 ‘명예의 빛’의 맥락으로 표명한 것은, 초석을 캐내고 수출했던 약 50년 동안 이 지방과 중앙정부 그리고 나아가서 칠레라는 국민국가와의 관계를 되짚어보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방이 국가에게 ‘명예가 걸린 빛’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저에 신사도(紳士道)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다. 이 논리를 따르자면, 지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가가 신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되는 것이다.³³⁾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 첫 번째는 두 행위자가 동격이라는 명제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은 국가에 예속되어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국가와 같은 위상에 있는 동등한 행위자라는 것이다.³⁴⁾ 이들은 민주주의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고 집행하는 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³⁵⁾ 다시 말해서, 칠레가 민주주의의 원리를 존중하는 공화국이라면 그 국민, 그의 일부인 따라빠까 지방과 이끼계, 그리고 국가는 동격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

³³⁾ 우리는 현재적 관점에서는 신사도와 같은 행태가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에 입하는 자세가 상당히 진지했었다. 칠레 상류층에 대한 영국문화의 영향력은 매우 컸고, 인디오 인구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들보다 덜 ‘야만적이고’ 더 ‘문명화되었다’는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집착은 칠레의 모든 계층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문화적 태도는 20세기 초에 태동하는 중산층에서도 특히 많이 발견된다. 중산층은 노동자 계층과 구별되기 위해 자신들의 소박하지만 품격(dignidad)있는 문화를 내세웠고, 예의와 의리 등에서도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키워가고 만들어갔다고 한다(Silva 2000; Barr-Melej 2001). 이끼계의 중산층 주민들과 시민들로 구성되었던 발전위원회와 이끼계시가 일관되게 폭력을 지양하고 인내의 전략으로 예의와 프로토콜을 지키며 중앙정부 인사들에게 접근한 것도 자신들이 ‘무식한 지방민’(혹은 서민(rotos))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³⁴⁾ 뿐만 아니라, 발전위원회와 시 대표들의 연설이나 성명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처럼, 이끼계는 끝까지 ‘남자답게’(en forma viril) 생존권을 주장할 것이라는 데에는 남자들이끼리 동급에서 정당한 싸움을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³⁵⁾ 그것은 앞에서 보여주었듯이, 발전위원회의와 이끼계시의 활동과 발언이 이끼계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생성된 것이라고 강조하는 데서도 알 수 있고, 또 그들 스스로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를 엄격히 지키면서 일을 집행한 데서도 엿보인다.

었던 것이다. 물론 국가가 지방의 요구를 끊임없이 무시했다는 것은 사실상이 지방을 ‘무시해도 되는’ 대상으로 타락시키는 것이었다. 이 경우 이러한 국가는 민주적일 수는 없다는 이끼께 시민들의 의견이 시위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동등한 행위자 집단이 지켜야 하는 도리의 문제, 곧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져야 하는 일련의 규칙과 원칙의 내용, 그리고 이 문제가 동반하는 도덕성에 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모스의 증여론이 시사해주는 점이 많다. 물론 모스는 선물교환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선물교환은 아니다. 그러나 ‘명예가 걸린 빛’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선물교환에서와 마찬가지로 증여를 받았을 때 돌려줘야 하는 의무이다(Mauss 1970[1954]). 선물교환은 호혜성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증여를 받았을 때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도덕적으로 증여자에게 종속된다. 바로 이 상황에 답례를 하지 않으면 그의 명예는 실추되는 것이다. 이 때 답례를 하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명예가 걸린 빛’의 도덕적 부담은 커지기만 한다. 이 빛을 갚지 않을수록 증여를 받은 사람은 더 낮은 도덕적 지위로 떨어진다. 검은 깃발의 시위는 빛을 갚지 않은, 그리고 갚으려고 하지도 않은 칠레국가의 도덕성과 위상을 정면에서 문제 삼는 행위였던 것이다.

‘명예가 걸린 빛’의 주장과 동시에 이끼께 시민대표들은 ‘희생’의 담론도 같이 사용하였다. 특히, 위에서 얘기된 것처럼, 국가를 위한 희생을 기리는 국경일을 보이콧한다는 것은 그간 자신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해왔으나 그 희생은 전혀 인정조차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비애와 분노를 표현한 것이었다. 중앙정부가 ‘명예가 걸린 빛’에 대한 그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희생에 대한 담론이 나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명예가 걸린 빛’은 동등한 지위의 두 행위자(혹은 이 경우에는 행위자 집단)을 상정하는 것이지만 ‘희생’은 이 두 행위자가 불균등한 관계에 놓여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³⁶⁾ 위베르

³⁶⁾ 애석하게도 모스는 증여론과 희생을 다룰 때 주어진 사회적 관계가 이미 특정한 권력관계에 기반하여 거래자간에 불평등한 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을 경우를 전혀

와 모스에 따르면 희생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생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희생수혜자’(sacrifiant: 희생의 혜택을 받는 자)와 ‘희생자’(victim)가 설정되어서 “신은 희생수혜자 대신에 희생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다. 희생자는 희생수혜자를 구제해주는 것이다.”(Hubert and Mauss 1964 [1898], 97). 희생자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이유는 희생을 함으로써 얻게되는 도덕적인 권력 때문이다.

이끼끼의 시민들이 ‘희생’의 담론을 빌어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시위한 것은 희생을 함으로써 희생자가 얻게 되는 이 도덕적 권력을 자신들의 것으로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 역시 비유적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주장이었다. 희생자는 희생을 함으로써 도덕적인 권위를 획득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즉, 희생자는 자신의 희생이 얼마나 숭고한가를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희생이 이루어지려면, 희생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다. 희생자는 완전히 소진(consummate)되어야 하며, 바로 이러한 완전한 소진에서 도덕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이다(아르투로 프라트의 경우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다). 마지막으로, 희생이란 희생수혜자가 희생자의 희생을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위의 사건전개에서 보았듯이, 칠레정부는 이 지방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물론 ‘명예가 걸린 빛’이나 ‘희생’의 논제는 모두 ‘거래’가 있는 후, 곧 사후적인 상황에서 판단되고 전략적으로 활용된 논제들이다. 따라빠까 주민들과 그들의 선조들은 초석생산이 한창일 때 증여를 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희생을 하려고 해서 희생당한 것도 아니다. 그들의 ‘희생’은 ‘증여’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저 칠레 정부와 영국의 초석투자자들이 구축한 정치경제적 기획에 계약적으로 참여를 해서 착취를 당했던 것이다. 이 착취에 대한 항변과 ‘희생’에 대한 보상요구는 1910년대 칠레에서 가장 강렬했던 노동운동으로 표현되기도 했

다루지 않았다. 특히 그 증여가 이루어지는 정치경제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못한 것이 모스 업적의 한계라면 한계이다.

는데, 앞에서 언급한대로 국가는 일관되게 폭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대응했었다.³⁷⁾ 인류학자 프레이저는 이같이 지방형성기 때부터 투입됐어야 했던 국가폭력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칠레국가의 헤게모니가 이 지방에서는 취약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Frazier 1998, 15).

1957년 5월 21일 있었던 “검은 깃발의 시위” 역시 칠레의 국가적 헤게모니가 미완의 단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자, 이 지방민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활동했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시위를 주도하고 참가했던 이들은 이 사태를 계급적인 대결로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지방과 국가의 갈등으로 이해했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시위를 통해서 국가와 맺고있는 불평등한 관계, 그리고 불평등하기 때문에 취약한 지방과 중앙의 관계를 폭로했던 것이다. 이것은 또한 국가주도의, 국가가 규정하는 피상적 ‘민주주의’에 도전장을 내놓는 행위이기도 했다. 지방민의 목소리가 완전히 묵살 당했음이 공식화되었던 것은 한편으론 모든 결정은 정책수립과정에 모두 중앙에서(지리적으로나 권력의 동심원으로 보나)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끼계 시민은 국가와의 관계가 목적합리적인 계약이나 거래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도덕적인 토대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아닐까. 궁극에는 실패를 했어도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국가와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했던 시도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이 문제를 외면하려고 애쓰면서 지방과 국가의 관계 자체를 거론하지 못할 주체로 주변화시키려 할 때, 이끼계 지방민들은 이 관계를 도덕적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권위에 도전했던 것이다.

이바네스 정권은 왜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관되게 침묵을 지켰던 것일까? 관료들이 이끼계를 방문하면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끼계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표명을 꺼렸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바네스 대통령의

³⁷⁾ 그중 1912년에 있었던 이끼계의 산타마리아 학교 대학살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이끼계로 내려왔던 초석광부와 그 가족들은 학교 운동장에 모여 협상집회를 기다렸으나 이에 군이 투입되어 사망자가 약 2,000명에 달했다 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인플레이션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해서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급한 불”을 꺼야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이끼께 시민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당시 인플레이션을 다스리기 위해 클라인-삭스 미션이 컨설팅을 하기 위해 칠레에 도착한 뉴스가 지방신문에도 크게 실렸었다). 그러나 이끼께 시민들에게는 이번 시위가 현재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묵은 국가와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는 데 그 의의가 있었던 것이다.

1958년에 정권이 바뀌자 대폭 수정된 “자유무역법안”이 통과되었다. 알레산드리 정권은 제한과 예외사항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이끼께의 발전위원회가 소진되어 활동을 그만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1960년에 이르러서 모든 초석 광산들이 문을 닫게 되자, 알레산드리는 채광담당부처의 차관보 호르헤 폰테느(Jorge Fontaine)를 직접 “현장”으로 보내서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비상처방”을 내리게 했다. 대통령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폰테느는 자기가 봐도 중앙정부가 북부지역의 현실에 지나치게 무관심했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작년에 비해서 문제는 악화되었고, 이끼께와 피사과의 쇠퇴에 대해 정부가 효과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시민들은 더욱 더 절망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된 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큰 소용이 없겠습니다. 또한 이 상황이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하는 것도 큰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현 정부는 상황을 호전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리게 대처했고 조율이 부족했습니다. [...] 여기뿐만 아니라 북쪽의 모든 도시들은 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적 메커니즘을 극복한다면, 문제를 직시하고 풀어낼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합니다.³⁸⁾

³⁸⁾ Jorge Fontaine, “Informe sobre Tarapacá,” República de Chile, Ministerio de Minería, Gabinete del Subsecretario, Santiago, 1960.05.09. Archivos Jorge Alessandri, Biblioteca Nacional, Santiago, Chile.

훗날의 정부관료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결국 북부지방민과 중남부의 공장주들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과생된 문제였다. 정부는 결국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택하면서 중남부 자본가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화를 장려하는 것은 그 당시의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북부지방은 칠레가 지대수입형 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신을 꾀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소진되기를 거부하는 희생물이었던 셈이다.

VI. 맺음말: 칠레에서의 이끼계의 위상과 시민정신

본 논문은 칠레의 정치사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지방과 지방민을 하나의 정치적 주체로 접근하여 이들이 국가헤게모니에 도전했던 “검은 깃발의 시위”를 재구성하였다. 전례가 없었던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다 하겠다. 첫째로, 이 사건은 칠레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이탈하여 독립공화국을 만들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그것이 칠레영토에 합병된 지 얼마되지 않은 최북단의 따라빠까 지방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더 그러하다. 이 사건은 북부지방이 지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중앙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고, 하나의 통합된 민족국가(nation-state)를 이룬다는 국가적 헤게모니가 완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두 번째 의의는 지방민의 정치세력화와 조직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점은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먼저, 지방민들은 지대수입형 국가와의 관계를 자신들이 스스로 규정하고 그 부당함을 폭로하려고 했던 주체성을 보였다. 이들의 말과 행동은 국가의 산업화 전략에서 자신들이 배제된 데 대한 항의표시였으며 더 이상 착취당하고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한편, 이들은 민주주의라는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민주적 절차를 지키며 인간의 존엄성을 내세우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것은 칠레 중산층이 형성되면서 자주 채택된 전략이기도 했는데, 민주적 절

차와 원칙을 중요시하는 칠레의 정치적 아비투스(habitus)를 잘 드러내는 예라고 본다(cf. Paley 1999). 세 번째로, 지방의 사회적 맥락에서 이 사건은 독자적이고도 독립적인 지방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그 유산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끼계는 오늘날까지도 중앙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시장을 네 번이나 당선시킬 만큼 지방색이 강하다. 그런 전례는 칠레의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같은 지방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1957년 당시 이끼계 시민들의 “영웅적” 활약이 집단기억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권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정당간의 민주적 대결이 아닌 국가와 지방민의 갈등관계를 통해서 칠레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 유형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끼계의 시민, 이끼계 발전위원회, 그리고 이끼계 시 대표들이 국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을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이 초기에 취했던 점잖은 협상방식, 의미와 명예로 거는 승부, 시민회의를 통한 수많은 집회와 의사수렴, 현지 언론을 통한 정보의 공개와 공유, 시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가졌던 열성 - 이 모든 행적과 검은 깃발의 시위는 어찌 보면 순진하고 무모하다는 평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배후에는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민주주의에 관한 확고한 믿음이 자리잡고 있었음에는 틀림없다. 그들은 국가에 공헌했던 만큼 돌려받기를 바랐으며, 국가가 이 사실을 최소한 인정해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칠레라는 국가에서 지방의 자존심을 지키며 그 위상을 인정받으려 했고 그 인정의 징표로 경제개발을 보장할 자유무역지대를 요청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으로 표방된 지방운동은 분명히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칠레 정치문화의 산물’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지만 이들의 사회학적 상상력과 열정은 칠레 정치사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1957, the citizens of Iquique sought to challenge the Chilean state when their request for a duty-free zone was given deaf ear. What had begun as a request turned into a demand, and this demand ultimately turned into a desperate act of defiance that sought to catch the attention of state and nation. In this paper, I chronicle the event that led up to the mythical Protest of the Black Flags of 1957, and discuss its implications within the context of Chilean political historiography.

Political historiography on Chile has focused mainly on the power struggle among political parties to attain control of the state, which reflected the various demands of different social actors. In this paper, I call attention to the region, more specifically regional citizens as agents who struggle against the state to make themselves heard and make demands to improve their condition of life. Regional forces have not been considered as a meaningful political agent in the history of Chile, but the Protest demonstrates that instead of being aligned along class lines or political parties, Iquique's citizens from all backgrounds and political leanings came together to denounce en masse the state's apathy to a region that was apparently facing an economic crisis. The protest, the first one ever in Chile's history to declare secession from the state, was a projection as well as praxis of a deeply ingrained belief in democracy and civil rights.

Key Words: Chile, Tarapacá, State-Region Relationship, Political Historiography, Protest of the Black Flags / 칠레, 타라파카, 국가-지방의 관계, 정치사 서술방식, 검은 깃발의 시위

논문투고일자: 2009. 10. 17.

심사완료일자: 2009. 11. 15.

게재확정일자: 2009. 11. 16.

참고문헌

1차 자료

Cámara de Diputados de Chile(1913), *Comisión parlamentaria encargada de estudiar las necesidades de las provincias de Tarapacá y Antofagasta*, Santiago: Zig-Zag.

Chile(1951), *Dirección de Estadística y Censos*, Boletín 24, No. 1-2.

_____ (1953), *Dirección de estadística y censos*, Anuario Estadística 7.

_____ (1955), *Dirección de estadística y censos*, Boletín 28, No. 11.

_____ (1956), *Dirección de estadística y censos*, Boletín 29, No. 1-12.

_____ (1956), *Servici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s*, Estadística Chilena, Año. XXIX, No. 1-2, Enero-Febrero.

_____ (1957), *Servici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s*, Estadística Chilena, Año. XXX, No. 11-12, Noviembre-Diciembre.

_____ (1957-1958), *Dirección de estadística y censos*, Boletín 30-31, No. 11-12.

Centro Para el Progreso(1957), *Pasado, presente y futuro de Tarapacá: El centro para el progreso fundamenta sus aspiraciones para obtener una Ley especial que posibilite el desarrollo de Tarapacá*, Iquique.

CORFO(1979), *CORFO 1939-1979. Memoria informativa 40 años*, Santiago: Corporación de Fomento de la Producción.

_____ (1997), *Dossier-La modernización del estado, El caso CORFO*, Santiago: Corporación de Fomento de la Producción

Informe sobre Tarapacá(1960), República de Chile, Ministerio de Minería, Gabinete del Subsecretario, Archivos Jorge Alessandri, Biblioteca Nacional, Santiago, Chile.

Semana Tarapaqueña(1959).

보도자료

La Unión de Valparaíso

El Diario Oficial

El Tarapacá de Iquique

개인소장 문서

Tomás Tuset Ros

Domingo Sacco

Guillermo Ross -Murray Lay- Kim

2차자료

Barr-Melej, Patrick(2001), *Reforming Chile. Cultural politics, Nationalism, and the Rise of the Middle Class*, Chapel Hill and London: The University North Carolina Press.

Bengoa, José(1985), *Historia de un conflicto. El estado y los Mapuches en el Siglo XX*, Santiago: Planeta/Ariel.

Bermúdez, Oscar(1987), *Breve historia del salitre: Síntesis histórica desde sus orígenes hasta mediados del siglo XX*, Santiago: Ediciones Pampa Desnuda.

Blakemore, Harold(1974), *British Nitrates and Chilean Politics*, London: The Athlone Press.

Castro, Luis(2002), “El temprano Regionalismo de los tarapaqueños durante el ciclo salitrero: De los discursos económicos a la identidad socio-cultural, 1880-1930,” *Revista Ciencias Sociales*, Vol. 12.

Caviedes, César(1974), *The Politics of Chile: A Sociogeographical Assessment*, Boulder: Westview Press.

Cho, Kyungjin(2004), *The Culture of Boom-and-Bust and the Duty-free Zone: The Struggle to Find Iquique's Place in the Chilean Nation-State*,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Collier, Simon and William Sater(1996), *A History of Chile: 1808-1994*, New York 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ronil, Fernando(1997), *The Magical State: Nature, Money and Modernity in Venezuel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rrea Prieto, Luis(1962), *El Presidente Ibañez*, Santiago: Editorial Oribe.

- Edwards Vives, Alberto(1928[1972]), *La fronda aristocrática de Chile*, Santiago.
- Frazier, Lessie Jo(1998), *Memory and State Violence in Chile: A Historical Ethnography of Tarapacá 1890-1995*,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Gil, Federico(1966), *The Political System of Chile*, Boston: Houghton Mifflin Co.
- Hirschman, Albert(1963), *Journeys Toward Progress: Studies of Economic Policy-making in Latin America*, New York: The Twentieth Century Fund.
- Honneth, Axel(1995),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Cambridge: Polity Press.
- Hubert and Marcle Mauss(1964[1898]), *Sacrifice: Its Nature and Fun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oveman, Brian(1988), *Chile: The Legacy of Hispanic Capitalism*,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onteón, Michael(1982), *Chile in the Nitrate Era: The Evolution of Economic Dependence, 1880-1930*,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_____ (1990), "Latin America, Underdevelopment, and the Rentier State," *Crítica*, Vol. 2, No. 2, pp. 64-76.
- _____ (1998), *Chile and the Great Depression: The Politics of Underdevelopment, 1927-1948*, Tucson: Arizona State University Center for Latin American Studies Press.
- Paley, Julia(2001), *Marketing Democracy: Power and Social Movements in Post-Dictatorship Chile*, Berkeley and L. 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etras, James and Fernando Ignacio Levia(1994), *Democracy and Poverty in Chile: The Limits of Electoral Politics*, Boulder: Westview.
- Pinto Valeejos, Julio(1991), *A Desert Cradle: State, Foreign Entrepreneurs and Workers in Chile's Early Nitrate Age Tarapacá, 1870-1890*, Ph. 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 Pizarro, Crisostomo(1986), *La huelga obrera en Chile*, Santiago: Ediciones SUR.
- Sagredo, Rafael(2001a), *El viaje presidencial como práctica política en Chile Siglo. XIX*, Santiago: DIBAM and Mexico City, Colegio de México.
- _____ (2001b), *La gira del presidente balmaceda al norte: El inicio del “crudo y riguroso invierno de Quinquenio”*, Santiago: LOM Ediciones, Centro de Investigaciones Diego Barros Arana.
- Sater, William(1973), *The Heroic Image in Chile: Arturo Prat, Secular Sai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ilva, J. Pablo(2000), *White-collar Revolutionaries: Middle-class Unions and the Rise of the Chilean Left, 1917-1938*,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Stickell, Arthur Lawrence(1979), *Migration and Mining. Labor in Northern Chile in the Nitrate Era 1880-1930*,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ndiana.